

친절한 말의 울림은 무한하다.

Kind words can be short, and easy to speak, but their echoes are truly endless. (Mother Theresa)

친절한 말은 짧을 수도 있고, 말하기는 쉬울 수도 있지만, 말의 울림은 정말로 끝이 없다. (테레사 수녀)

여의도에서 시청방향으로 마포대교를 지나며 난간에 많은 글귀가 써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난간에는 혹시 있을 수 있는 생명을 포기하려고 다리 위를 찾은 사람들이 삶에 대해 다시 생각하고 다시 삶을 살도록 유도하는 말들이었습니다. 그 말들은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도 있겠다고 하는 생각이 들게 하였습니다.

문구의 길이와 상관없이 사랑이 담긴 친절한 말은 그 말을 읽거나 듣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감동을 주기도 합니다. 말 한마디로 감동을 하고 다시 태어난 사람에게 그 말의 여운은 끝없이 기억될 것입니다.

또한, 친절한 말은 말하기가 아주 쉬워 말하는 이의 처지에서 보면 큰 의미가 없는 말처럼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의 관점에서 보면 그 말은 천금보다 더 무겁고 용기와 희망을 줄 수

도 있습니다.

말은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도 있고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하는 친절한 말은 그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도 있습니다. 울림이 큰 친절의 말을 생활화합시다.